

INTERNI

& D e c o r



THEME

지금, 여기의 집
집이 들려주는 공간의 시간

TRADE SHOW

NeoCon 2025
London Design Biennale 2025



우수콘텐츠잡지
2025

AUGUST. 2025



9 771228 624002
ISSN 1228-6249



치과에서 배우는 시간
Children's Dentistry Clinic

에디터 이석현

디자인을 맡은 비탈레(Vitale)는 '치과에서 배우는 시간'이라는
콘셉트 아래 치료 과정과 치과적 절차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
록 커뮤니케이션 디자인을 공간 전반에 녹여냈다.



대기 공간은 밝고 개방적이며, 모듈형 가구로 유연하게 구획된다.

스페인 카스테욐(Castellón) 나바라(Navarra) 60번지에 위치한 소아치과 클리닉은 비탈레가 설계한 인테리어 디자인 프로젝트를 통해 새로운 브랜드 정체성과 소통 전략을 구축했다. 클리닉은 아이와 청소년을 위한 소아치과 및 교정에만 집중하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브랜드 리뉴얼과 공간 재구성을 통해 경쟁력을 한층 강화했다. 공간은 아이들에게 친근하고 편안하지만 유치하거나 과하게 아동적인 분위기는 피했다. 치과 방문에서 흔히 느끼는 두려움과 긴장을 신뢰와 평온함으로 바꿔주는 것이 핵심 목표로 비탈레는 모든 연령의 방문객이 긍정적이고 익숙하며, 조용하고 안락한 분위기를 느낄 수 있도록 브랜드와 공간을 설계했다.

클리닉은 총 350㎡, 2개 층으로 구성되어 있다. 모든 환자 진료 공간은 1층에 집중되어 있고, 지하층은 직원 및 운영 공간으로 활용된다. 대기 공간은 밝고 개방적이며, 모듈형 가구로 유연하게 구획된다. 입구에서는 3m 높이의 나무 블록 아치를 지나게 되는데 캡슐 형태의 좌석이 중심을 이루며 보호받는 듯한 안정감과 편안함을 준다. 부드러운 곡선과 간접조명이 어우러져 환자에게 진정과 안락함을 전달한다.

Design / Vitale
Location / 카스테욐, 스페인
Area / 350㎡
Photography / Santiago Martín,
Hilke Sievers



리셉션은 10×10cm 크기의 세라믹 타일과 브랜드 컬러 줄눈으로 마감되었다.



소아치과 클리닉 출입구



▲ 공간은 아이들에게 친근하고 편안하지만 유치하거나 과하게 아동적인 분위기는 피했다.

▼ 편안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진정실



리셉션은 10×10cm 크기의 세라믹 타일과 브랜드 컬러 줄눈으로 마감되어 노트의 격자무늬를 연상시킨다. 벽면은 정밀하게 조각된 자작나무 합판 패널로 마감해 공간에 따뜻함과 안정감을 준다. 주요 접점에는 식물을 적극적으로 배치하여 환자들의 긴장 완화와 기분 전환을 돕는다. 브랜드 컬러와 로고는 공간 곳곳에 자연스럽게 스며들어 방문객을 안내한다.



‘구름들(nubes)’ 이름처럼 포근한 감성을 전달한다.

벽면은 정밀하게 조각된 자작나무 합판 패널로 마감했다.



터널 구조가 리듬을 만드는 복도 공간



지하층으로 내려가는 계단실에는 5m 높이의 대형 모빌을 설치했다.

새로운 로고는 원, 삼각형, 사각형 등 기초 기하학에서 출발한 서체로 디자인되어 아이들의 블록 놀이 언어를 시각적으로 표현한다.

디자인의 창의적 축은 어린이의 인지 발달에서 영감을 받았다. 브랜드와 인테리어는 나무 블록과 퍼즐 조각 등 어린 시절의 건설 놀이에서 출발한다. 실제 공간 곳곳에는 대형 아치, 나무 모빌 형태의 조명, 퍼즐처럼 짜인 월 패널 등 어린 시절의 학습을 연상시키는 요소들이 스케일을 달리해 등장한다.



합판과 타일로 마감된 벽면





소아치과 클리닉은 전통적 교육 요소와 브랜드 이미지를 결합해 의사의 철학과 소아치과에 대한 비전을 공간 자체로 전달한다.
어른에게는 어린 시절의 추억을, 아이에게는 익숙하고 편안한 치과 경험을 선사한다.



치료실은 천창을 통해 자연광과 수직 정원을 설계해 쾌적함을 더한다.

복도 공간에서는 터널 구조가 리듬을 만들며, 집처럼 아늑한 느낌을 준다. 첫 번째 터널은 화장실로 이어지며, 입구와 클리닉의 나머지 공간을 잇는 전이 공간 역할을 한다. 이곳을 지나면 방사선실, 포스트 트리트먼트룸, 그리고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실에 접근할 수 있다. 계단에는 5m 높이의 대형 모빌이 설치되어 시선을 사로잡는다. 두 번째 터널은 진정실과 후면 치료실로 이어지며, 치료실은 천창을 통해 자연광과 수직 정원을 설계해 쾌적함을 더한다. 유지관리와 위생도 중요한 고려 요소였다. 연속된 비닐 바닥재와 벽 마감재는 내구성과 오염 저항성이 뛰어나 의료 환경에 적합하다. 일부 공간에는 세라믹 타일과 장식용 합판 패널이 더해져 실용성과 미적 감각을 동시에 만족시킨다. ▮



브랜드 컬러가 공간 곳곳에 자연스럽게 스며들어 있다.



기하학 문양과 컬러로 장식된 치료실

